

연중 제31주일

2024. 11. 3 (나해) 제2338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복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마르 12,34나

좌상

이춘만

2002

청동 Bronze

58,0×29,0×23,0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1 독 서 신명 6,2-6

제 2 독 서 히브 7,23-28

화 답 송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마르 12,28ㄱ-34

영성제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신앙 안에서 안녕하기를...”

여러분 본당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교리교사들의 신앙은 안녕(安寧, 아무 탈 없이 편안함, peace, well)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들의 신앙의 척도를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잘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줄어들면 청소년 사목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숫자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이 잘된다는 것을 숫자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대교구 햇살 사목센터에 계시는 조재연 신부님은 “청소년 사목은 관계 사목(Relational Ministry)으로부터 시작되며, 관계 사목이 곧 청소년 사목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면 청소년 사목을 잘하는 것, 다시 말해 관계 사목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가톨릭 신문에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는 하느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분명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

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중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처음에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와 “사랑해”입니다. 서로의 안녕과 사랑은 참 좋은 말이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랑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와 실천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안녕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창훈 베드로 신부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사제들의 대화 (1)



지난주에 언급했던 사목평의회가 평신도-수도자-성직자가 함께 모여서 교구의 사목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사제들만 함께 모여서 교구의 현안을 논의하는 사제평의회도 교구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제평의회는 각 지구사제회의의 의견을 모아 평의회에서 함께 논의하며, 또한 교구의 각종 현안들을 지구사제회의에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 교구 안에 대화와 경청의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가운데, 사제들도 좀 더 긴밀하게 교구장님과 대화하고 교구청과 소통하며, 교구의 현안에 대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춘계와 추계 사제연수회를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대화를 원하는지 사제들에게 문의하였다.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제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화의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구사제회의의 논의를 통해서 사제들은 다양한 대화의 주제들을 제시해 주었고, 이 주제들은 크게 사제단의 소통, 교구의 행정, 그리고 사목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춘계사제연수회에서는 사제단의 소통과 교구의 행정에 대해서 다루고, 더 광범위한 사목의 주제에 대해서는 추계사제연수회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였다.



2023년 춘계사제연수회

사제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사제단의 친교와 일치,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에 대한 주제와 함께, 은퇴사제의 복지와 삶에 대한 문제, 보좌신부의 적체 문제와 사제 성소의 문제, 교구 성직자실의 좀 더 실효적인 운영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교구 행정에 관해서는 교구청의 행정적 축소 및 슬림화 방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구사목의 활성화 문제, 교구 운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사제 인사이동의 기간에 대한 원칙준수 문제, 현재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이 거론되었다.

사목에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 지방의 신자 고령화와 인구소멸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대비한 교구 중

장기 사목방향에 대한 논의, 농촌과 도시 본당의 소통과 연결의 문제, 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사목적 배려, 젊은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목과 농촌 노인사목에 대한 관심 등의 문제가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교회에 대한 성찰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목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담론의 필요성, 새로운 시대적 징표에 따른 교우들의 내적정체성 확립을 위한 논의도 제기되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사목국장

하느님께 맡기는 삶

새로운 빛을 여는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오늘도 선물로 받은 소중한 하루입니다. 가을빛 햇살이 고운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한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곤 했는데, 지금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우선 고해성사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화해를 청하고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지인과 함께하던 모임을 내가 그만두면서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니 좋은 소식도 아니고 또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은 쉬고 있었고 성당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 암이 재발했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에 점심을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 물들지 않은 은행나무가 즐비하게 내려다보이는 큰 통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진료도 다녀왔고 고해성사는 물론이고 미사에도 나가고 있다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천사를 보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내가 천사일리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사 같은 예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뜨거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돌아온 하느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투병생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의 투구를 쓰고 하느님의 거룩한 삶의 초대를 받았으니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요.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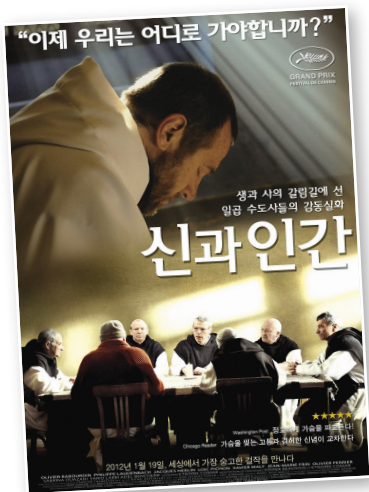
11월은 특별히 교회가 정한 위령성월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유정 크리스티나
화정4동 본당

신과 인간

Of Gods and Men, 2012

* DVD 시청 가능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로마 12,10).

제11회 가톨릭영화제 CaFF클래식에서 상영한 자비에 보부아 감독의 「신과 인간」은 1996년 알제

리 내전 당시 무장 이슬람집단에 납치되어 피살된 7명의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의 실화를 영화화했다.

알제리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동네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어 환자들을 돌보고, 농사를 짓는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고민 거리에 조연을 해주기도 하고, 동네 잔치에 초대되면 함께 가서 축하해 주고, 이람(이슬람 예배 집전자)의 축복 기도를 듣는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내전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외국 노동자들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테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원에 정부군 주둔이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수도자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12월 25일 성탄 밤미사를 앞두고 반군이 찾아와 총으로 위협하며 의사를 데려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꾸란의 구절을 인용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어렵게 돌려보내게 된다. 그때부터 수사들은 공동체에 남을 것인가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된다. 형제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 불안해하며 떠나고 싶어 하는 형제도 있고, 갈 곳이 없다며 체념하는 형제도 있고, 아직 어떠한 결정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형제도 있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공동체가 함께 식별의 여정을 걷는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도 하고 정세를 파악하려고 한다.

시간이 꽤 지난 영화이지만, 영화 안에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잘 드러난다. 이슬람의 테러 위험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 원장 혼자 중요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공동체가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어려움이 있는 형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하며, 수도원이 동반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의 입장도 헤아린다. 기도 안에서 식별하면서 그들은 깨닫는다. 안전한 삶 대신에 위험 속에서의 현존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생각이 달랐던 회원들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공동체에 남는 데 기쁘게 동참하는 일치의 체험을 하게 된다.



어느 때보다 전쟁과 반목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어떠한 폭력도 하느님께서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관용과 자비 안에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갈등이 커질 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스라엘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나라 안에, 전 세계에 자리하기 위한 평화의 여정을 살아가자.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교구장 동정



- 11월 3일 견진, 사목방문(남악)
11월 8일 군중후원회 10주년 기념미사
11월 9일 세나투스 4간부 연수 파견미사
11월 10일 견진, 사목방문(함평)

함께 걸어나가는
하느님 백성

사목국

2024년 성서주간 특강

일시 : 11.24(주일) 14:00
강사 : 예수회 송봉모 토마스 신부
주제 :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
장소 : 교구청 대건문화관
문의 : 062) 380-2260

군중후원회 10주년 미사

일시 : 11.8(금) 15:00
장소 : 교구청 성당
주례 : 옥현진 대주교
문의 : 062) 380-2843
※ 군중후원회 회원 여러분을
미사에 초대합니다.

성탄위문품 전달

교구 군중후원회에서는 금년 성탄 때에 군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탄위문품을 보내고자 합니다.
위문품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11.19(화)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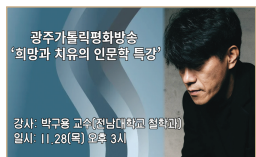
www.kjpb.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 (재방송) 16:50-17:00, 23:50-24:00]

11.4(월)-6(수) 김일두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 11.7(목)-9(토) 이건 신부(곡성 본당)

방송국에서는 지역민들과 신자들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인문학 특강'을 마련합니다.



강사 : 박구용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 / 일시 : 11.28(목) 15:00-16:30
주제 :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 장소 : 방송국 5층 다목적홀
문의 : 062) 231-7725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방청할 수 있고,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를 통해서 생중계합니다.

방송국에서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을 검색 후 해당 콘텐츠를 찾아 시청해주시고, 방송국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피아도도미니 소년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 · 시성을 기리며'
일시 : 11.17(주일) 16:00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목포) /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구민들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문의 : 062) 231-7700

성바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튀르키예, 그리스(11월 1.13(월)-23(목) / 성모님 발현지(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12월) 3.11(화)-22(토))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380-2213 | 책더하기사랑도서관 380-2218

광주가톨릭교리신학원 2학기 후반기 강좌 안내

신론 / 삼위일체론

강사 : 김일두 신부

• 11.6-12.18 / 매주 수 / 주간) 14:30-16:30, 야간) 19:00-21:00 / 7주 과정 / 수강료 5만 원

사도행전 / 바오로서간

강사 : 김영남 신부

• 11.7-12.19 / 매주 목 / 주간) 14:30-16:30, 야간) 19:00-21:00 / 7주 과정 / 수강료 5만 원

특강 안내

산티아고 스쿨

강사 : 박응철('그래서, 산티아고' 저자), 김영수 신부

• 주말) 11.16, 11.23 / 토 09:00-13:00 / 2회 과정 / 수강료 4만 원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심 있거나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영성에 관한 김영수 신부의 강의로 산티아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례 준비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산티아고' 저자와 함께 하는 강좌입니다.

※ 수강료 입금계좌 : 광주)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二絃(이현)의 이따름”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해금반 정기연주회 • 일시 : 11.19(화) 19:00 • 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사목을 지원하고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후원 계좌 안내>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국민은행 551-01-1449-309

신협 131-022-255227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062) 510-2881

노숙인 돌봄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노숙인에게
식사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와 함께할
든든한 동행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농협 301-0209-0858-41

기관·단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구 썰기도

일시 : 매주 월 09: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총무 010-3162-0112

성령기도회(성시간)

일시 : 매주 목 19:00-22:00
장소 : 교구청 성당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62) 382-6002

청주 초정성령화관 철야기도

일시 : 매주 금 21:00-토 새벽 03:00
강사 : 전국 유명강사
버스 :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00 출발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9:20 출발
문의 : 043) 213-9103, 010-5482-6744

포콜라레 월례모임(중)에 초대합니다

일시 : 11.3(주일) 15:00(누구나)
Zoom ID : 876 0662 7700, 암호 : 123456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요한병원 호스피스 대중교육 및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 11.12(화) 09:00-17:00
내용 : 말기암 호스피스의 이해와 돌봄
교육비 : 3만 원
문의 : 062) 510-3073, www.yohanhos.or.kr

소화자매원 후원자 및 직원 미사

일시 : 11.13(수) 14:00
장소 : 소화자매원 지하성당
문의 : 062) 675-4023

한일주교교류모임 미사

일시 : 11.13(수) 17:00
장소 : 가톨릭목포성지 산정동 준대성전 2층
집전 : 옥현진 시몬 대주교
(주교 45명 미사 참례)
문의 : 061) 279-4650, 061) 273-7007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프로그램**

기간 : 11.11(월)-25(월), 12.9(월)-16(월)
장소 : 강원도 홍천
대상 : 60세 이상
비용 : 1주 75만 원, 2주 150만 원
문의 : 010-7451-9707

성모술술투 무료 치유대(對) 피정

일정 : 매월 둘째 주 금-주일(2박 3일)
주제 :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1. 누구나 신청 가능
11.8(금)-10(주일), 25.1.10(금)-12(주일)
2. 청·중년 신청 가능
12.13(금) 18:00-15(주일)
문의 : 문자접수 010-3209-3955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야기타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 중)
자연순례 : 11.21(목)-23(토),
12.1(주일)-3(화), 12.6(금)-8(주일)
추자도포함 : 11.25(월)-28(목)
연말연시(한라산) : 12.29(주일)-1.1(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2) 773-1455, 064) 796-4182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 12.7(토)-9(월), 2.8(토)-10(월)
연말연시(한라산포함) : 12.30(월)-25.1.2(목)
성지순례(추자도포함) : 11.24(주일)-27(수)
12.1(주일)-4(수), 25.3.1(토)-4(화)
문의 : 02) 773-1463, 064) 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12.21(토)-22(주일), 2.14(금)-15(토)
3박 4일 : 11.28(목)-12.1(주일), 12.5(목)-8(주일)
8박 9일 : 11.14(목)-22(금), 12.26(목)-1.3(금)
40일 : 12.14(토)-25.1.22(수)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 953-6932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설립

60주년 기념 로마 방문

‘어린이 선교사’ 접수순 모집
일정 : 25.5.14(수)-22(목)
참가비 : 480만 원(1인)
※ 일정과 참가비는 추후 변동 가능
대상 : 초등 3-6학년(성인 보호자 1명 동반 가능)
주요활동 : 교황님 알현, 교황청 방문,
이탈리아 성지 순례
문의 : 02) 2268-7103, www.pmsk.net

제5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사진대전

주제 : 평화·사랑
작품수 : 11×14인치 4점, 출품표 첨부
접수 : 10.20(주일)-11.20(수)
이메일 : hanbitnim@naver.com
출품료 : 2만 원(광주대교구사진)
계좌 : 카카오페이 3333-30-5426418
문의 : 010-8603-6596

성가대지휘 전문가과정 개설

장소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대상 :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 있는 사람
기간 : 연간 24주간 3년 과정(토 09:00-13:00)
입학시험 : 25.2.15(토)
등록금 : 1년 290만 원
문의 : 음악원 051) 519-0475

제주순전기사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10-4566-6476

선교·수도회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하루 피정

일시 : 11.23(토) 10:00-16:00
장소 : 이사벨레매 여성원
대상 : 후원자분들과 피정을 원하시는 분들
주제 : 하느님, 제 생명의 바닥이시여
문의 : 010-5240-0295, 010-9304-0295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국민건강보험공단

11.06 - 9강 의료 민영화 위험과 공공의료
정형준 /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12.04 - 10강 의의 시대
박태웅 /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

이춘만의 기도: Prayer 展

Lee Choon mann
Collection
Exhibition

전미 찬송 2008, Bronze

2024. 10.11 Fri
2025. 7.25 Fri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